일차의료 육성투자 및 미래의 의료와 일자리

조 경 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의료정보위원장
khchomd@gmail.com

아직까지 의료전달체계, 올바른 일차의료의 육성 제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의료체계 내에서 건강한 의료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국민 건강과 일차의료, 의료서비스 제공의 방향, 4차 산업혁명과 의료 그리고 일자리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국민건강과 일차의료

건강문제는 전체 생애 과정에 걸친 건강위험요인의 축척물이다. 국민건강 및 인구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생애에 걸쳐 질병의 위험을 낮추어야 한다. 만성질병 즉, 생활습관병은 식생활습관, 일상생활, 스트레스, 운동, 내 삶의 많은 직업적 환경적 요인과 나쁜 생활습관 즉 과도한 음주, 흡연 등에 의해 축척되고 급속히 진행된다. 기초 질환이라고 논하는 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등이 발병되고, 여러 요인들의 축척에 의해서 당뇨병, 암, 심뇌혈관 질환(심장병, 중풍, 심근경색 등), 관절염, 불면증 등이 나타나게 된다.

일차의료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 주민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예방접종, 금연, 비만관리 등의 생활습관 조절, 기타 교육 등 예방적 의료서비스, 일차의료 기관을 가장 많이 찾아오게 되는 여러 증상의 관리 및 급성 질병의 치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초 질환의 지속적 관리, 그리고 고령화에 따라 계속 증가하게 되는 만성질환과 복합 만성질환의 관리 서비스가 있으며, 지속성과 포괄성의 원칙에 맞추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는 동네의원과 병원이 각 각 제 역할을 하면서, 국민인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동네의원은 지역사회에서 흔한 경증질환의 외래 진료를 담당하고, 병원의 역할은 고난도의 중증질환 진료와 입원진료, 교육 연구를 담당하여야 한다. 일차의료는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축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최초 접촉점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건강한 의료시스템은 국민의 건강, 환자의 건강이 최우선적으로 지켜지는 의료이다. 민간 중심의 행위별 의료수가제의 기조에서는 환자 중심의 올바른 일차의료가 정립되기가 어렵다. 환자의 건강,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제도가 바르게 서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올바른 일차의료를 위한 많은 육성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동네의원은 경증질환의 외래 진료를,
병원은 고난도의 중증질환 진료와 입원진료,
교육 연구를 담당해야 한다.
일차의료는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축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최초 접촉점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의료 서비스 제공의 방향

의료제공의 spectrum은 건강관리, 급성질병 치료, 만성질병의 관리, 사회적 돌봄, 말기환자 관리로 정리할 수 있다.

건강관리는 부족한 재원과 제도를 민간 주도의 건강관리 서비스법으로 보완하려 하고 있다. 급성 질병 치료는 시장 중심의 행위별 수가제를 이용하여 세계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만성질병 관리는 현 제도 상의 취약점으로 계속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있다. 사회적 돌봄 및 말기환자 관리는 장기요양보험 및 호스피스 그리고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비암성호스피스 사업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 수준을 높이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에서는 예방접종의 제공, 금연서비스 제공, 병원급에서의 만성질환 상담 수가 등이 일부 제도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건강관리의 많은 영역에서 현재 상당히 진일보하고 있다. 2010년부터 논의되어 온 건강관리 서비스법은 일자리 창출, 의료보험 재정의 보충 및 건강서비스 발전을 위해 제시되고 있다. 건강관리 서비스법에서는 국민들을 건강군, 건강주의군, 질환군으로 구분하여 건강군 및 건강 주의군에게 건강위험도 평가를 하여 기초 질환군에 대한 예방적 접근으로 위험 요인(비만, 스트레

스, 생활습관 관리 등)에 대하여 동기 강화 상담 및 행동변화를 가져오게 하도록 제안되고 있다, 직접, 방문, 전화 및 ICT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제공자들의 감시 감독권의 부분과 민간 사업자의 영역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의료서비스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이다.

만성질환의 관리의 제도적 보충을 위하여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2013~),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2016.9~)이 추진되고 있으며, 복합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되고 있다.

의료 서비스의 제공은 급성기 치료 중심의 의료에서 예방관리 서비스의 확대 및 만성질환, 복합만성질환관리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많은 선진 국가에서는 의료비용을 특히 많이 사용하는 고령층, 복합만성질환자를 위한 많은 실험적 제도가 시범운영 되고 있다. 미래 의료의 방향은 공급자는 병원중심의 공급에서 지역사회·주거지 기반의 공급으로, 급성·단일 질환 중심의 제도에서 복합만성질환 중심의 시스템으로, 의사중심의 제도에서 다학제간·팀진료의 방향으로, 일과성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적·기대부응적 지속형 의료로, 분절된 의료에서 연계 조정되고 통합된 의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병원은 첨단의료의 장으로 새로운 산업과 연구의 장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병원은 첨단의료의 장으로 새로운 산업과 연구의 장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다양한 기술의 제공은 더욱 의료의 공급이 잘 되도록 지원하며, 의료보조인력의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통합적 의료시스템에서는 환자와 의사의 노력 이외에도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러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 많은 일자리와 함께 새로운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한 새로운 직종군 및 신규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의료 현장에서의 미래는 임상 현장에서의 인공지능으로 왓슨의 암치료 영역을 필두로, 환자 모니터링 및 조언과 함께 의사의 전문 지식 습득에 도움을 주고 있다.

미래의 의료

1차 및 2차 산업혁명을 통한 대량 생산이 인간 육체 노동의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렸으며, 통신·컴퓨터 관련 3차 산업혁명과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의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정신·지식노동을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가져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CBM(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인공지능)으로 표현되는 디지털기술의 보편화는 우리의 미래를 새로운 세계로 끌어가고 있다.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생물학·물리학·디지털의 융합과 함께 데이터 기반 혁신으로 모듈화·공유화·표준화의 플랫폼 경쟁 그리고 정밀의료와 디지털헬스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계속 개발되어 가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의 미래는 임상 현장에서의 인공지능으로 왓슨의 암치료 영역을 필두로, 환자 모니터링 및 조언과 함께 의사의 전문 지식 습득에 도움을 주고 있다. 개인화된 진단과 처방, 증

거기반 진료, 유전자 분석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른 표적 치료제의 개발과 함께, 의료영상의 자동 분석은 방사선학을 새로운 영역으로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다빈치로 표현되는 수술 로봇 그리고 여러 영역에서의 로봇의 이용과 함께, 사람 능력 증강 시스템은 재활치료를 새로운 영역으로 끌고 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모바일헬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개인의 행동 패턴정보 확보와 함께 조기 징후 발견 및 맞춤형 치료의 기본 인프라로 이용될 것이다. 저렴한 센스 장치의 확산은 노인의 삶의 질과 독립성보장을 위한 여러 의료서비스를 만들어 낼 것이다. 가정 내 건강 모니터링장치를 이용한 여러 건강과 웰빙 관련 서비스, 재택치료용 여러 첨단 장비들의 이용과 더불어 가정 로봇을 이용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멀지 않은 시간에 다가 올 것으로 보인다. 합성 생물학 및 인공 장기의 급격한 발전은 의료의 새로운 세계를 보여 줄 것이다.

미래시대에서의 일자리

최근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고실업 상태가 지속되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저성장·고실업은 청년실업 증가와 함께 다양한 일자리 관련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일자리는 동력 기술은 육체 노동을 대체하며, 생산 기술은 기계 효율성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고, 정보기술은 인간의 인지와 판단 등 정신노동까지도 대체된다. 사람의 노동력을 컴퓨터가 대체하게 되면서 생산에서 자본의 비중이 높아지고, 근로자 사이에서도 고직능·고임금과 저직능·저임금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 경제력 격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10~20년 내에 한국의 직업종사자 중 63%가 위험하다는 보고도 있다. 전문가 사이에도 기술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한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 사라지는 일자리와 더불어, 신기술의 등장은 대체되는 직업과 그 빈자리를 채우는 보완직업을 동시에 양성한다고 한다. 20세기 말에는 고학력 연구개발 전문직이 많이 생겼으며, 21세기는 SW 개발·융합·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의 직업이 계속 나타나며,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IT산업이 탄생과 창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국내에서는 약 95만 6천개의 직업이 창출될 것으로 일부에서는 보고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산업은 미래에 높은 부가가치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으로 많은 수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평가된다.

의료서비스산업은 미래에 높은 부가가치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으로 많은 수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평가된다. 타 산업에 비해 서비스 제공에 의사·간호사 및 관련 전문 인력 등을 많이 필요로 하여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크고, 수요증가에 따라

연관 산업에서의 직간접 고용증대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7-2011년 사이 전체 신규창출 일자리 81만개 중 14만개(17%)가 보건의료부문에서 창출되었고, 미국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산업은 2010-2020년 사이에 신규 창출되는 총 일자리의 28%(약 57만개) 가량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품질의 하드웨어와 뛰어난 통신 인프라의 장점은 있으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여러 영역에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커서, 미국에 대비하여도 각 영역별 3-6년이 낙후되어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적응준비도 세계25위 수준으로 앞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항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대체되는 직업과 그 빈자리를 채우는 보완직업이 양성된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강한 의료 시스템의 건설과, 국가경제를 견인할 여러 신성장 동력의 발전을 통하여 양질의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의료계가 되기 위한 우리 세대의 많은 노력이 요망된다.